

2023년 세계경제 전망: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

2023 World Economic Outlook:
Suppressed Recovery amid Tightening and Fragmentation

2022. 11. 21. (월) 14:00~17:0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2층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초청의 글

전세계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 갈등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만해도 전세계는 공급망 복원과 방역 피해로부터의 회복에 매진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도모하는 '글로벌 전환'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효율적으로 돌아가던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가 진행되고, 원자재를 위시한 자원 무기화가 한층 심화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경제 전반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대중의 인플레이션 기대도 흔들리면서, 저물가 및 저이자율의 시대가 다시 오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는 상방 호조 요인보다는 하방 리스크 요인이 더 부각되고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계속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로는 첫째, 금리 급상승에 따른 민간 부채 부담이 실물로 전이되는 경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빠르고 보폭이 큰 정책금리 인상이 한계 가계와 기업, 각종 투자 프로젝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기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 역할의 딜레마를 꼽을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재정도 긴축이 필요하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너무 많은 지출이 되어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이 걸림돌입니다. 영국의 예에서 보듯 재정 수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확장 정책 기조는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확대, 북한 문제 등 도처에 위험 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3년 세계경제 전망: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2023년 세계경제를 전망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 흥 종**

프로그램

시간	행사 내용
13:30~14:00 (30')	참가자 등록
개회식	
14:00~14:10 (10')	개회사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제1세션. 2023년 세계 및 아시아 경제 전망 사회: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4:10~15:10 (60')	2023년 KIEP 세계경제 전망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
	2023년 IMF 아태지역경제 전망 Yizhi Xu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
15:10~15:20 (10')	Coffee Break
제2세션. 경기 변동과 기업 활동 사회: 장용성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5:20~17:00 (110')	코로나 이후의 부채부담: 글로벌 기업동학을 중심으로 Alexander Copestake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
	글로벌 기업과 경기 변동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Yizhi Xu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한원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라이브방송 보기

• LIVE ON AIR

YouTube 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검색하시면 채널 접속이 가능합니다.
http://www.youtube.com/kiopinfor



* 본 행사는 국영문 방송으로 이원 생중계됩니다.